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작:
윤미희

연출:
이인수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정보를 많은 관객 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보존과학자

* 이 공연은 2022년 (재)국립극단의 [창작공간: 작가]를 통해 개발된 작품으로 2023년 5월 25일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재)국립극단 제작으로 초연되었습니다.

2023 [창작공간: 작가]

작품개발단계 연혁

YY	MM	DD	주요연혁
2022	03-05		공모 및 작가선정
	05	30	오리엔테이션
	06-10		정기모임 : 워크숍 및 스터디
			브레인스토밍 워크숍
			• 동시대성과 서사(사회학자 엄기호)
			• 움직임(안무가 이운정)
			• 인터뷰 및 취재를 바탕으로 한 허구쓰기(극작가 이양구)
			스터디
			• 동시대 담론 및 신작 주제 관련 도서 토론
			초고 피드백 워크숍
2023			• 오혜진 평론가
			• 엄기호 문화학자
			• 장재키 인지신경과학자
			인터뷰
			• 학예연구사 권인철
	11	3	국립극단 내부 과정 공유회
	11	21	퇴고
2023	12	8	최종 과정 공유회
	04-05		본 공연(백성희장민호극장), 희곡집 출간

국립극단 <보존과학자>

작 윤미희

연출 이인수

일시
2023. 5. 25.(목) ~ 6. 18.(일)

장소
국립극단 백성회장민호극장

주최·제작
(재)국립극단



02 운영위원의 글

04 작가의 글

05 연출의 글

06 줄거리

08 출연진

12 스태프 프로필

14 작품 이해돕기 1

16 작품 이해돕기 2

18 무대 스케치

19 의상 스케치

20 연습 스케치

22 만드는 사람들

23 (재)국립극단

의미 이전에 실재하는 존재의 물성을 감각하라!

전영지 [창작공감: 작가] 운영위원

2022년 9월, 백남준의 '다다익선'(1988)이 부활했다. 브라운관의 노후화로 인한 화재 위험 등으로 2018년 가동이 중단된 이래 4년 반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다다익선'의 보존·복원 작업에 참여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권인철은 윤미희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인공호흡기를 단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예술작품도 늙고, 병들어, 끝내는 죽음을 맞이하는 모양이다. 운명의 순간이 '보존과학자(conservator)'의 부단한 노력으로 근근이 늦춰지고 있는 것일 뿐. '영원불멸의 예술'이라는 신화를 위해 작품 뒤에서 묵묵히 작품의 '생로병생(生老病生)'을 살피는 '미술관의 의사', 그가 바로 이 작품의 '보존과학자'다.

<보존과학자>가 그리는 미래—대략 2931년경—의 보존과학실에도 작동을 멈춘 텔레비전 한 대가 놓여있다. 아마도 과거의 어느 시점, 어떤 윤리적인 보존과학자가 자신의 실패를 담담하게 인정하며 이 고물(古物)을 보존·복원해 낼 수 있는 미래가 언젠가는 도래하리라는 기대로 수장고 구석에 밀어 넣어둔 것일 터다. 그러나 <보존과학자>가 그리는 가상의 미래는 썩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간 생존자 보존과학자1과 그의 동료, 철·유리·알루미늄에 따르면, 온갖 재앙이 불어 닥친 이후로 거의 모든 것이 사라졌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만들 생산능력도 재생능력도 상실했다고 한다. 남은 것은 오직 데이터뿐이다.

사물 없이 데이터만이 남겨진 세계는 황폐하다. 물성은 잃고 의미만이 잔류하는 셈. 의미에 대한 강박이 가득하다. 보존과학자1은 자신이 찾아낸 텔레비전이 그저 여느 텔레비전이 아니기를, 예술작품이기를, ‘다다익선’의 일부이기를, 또는 백남준이 쓰던 텔레비전이기를, 아니 불멸의 예술가 백남준이 그 안에 살아있기를 소원한다. ‘영동한 상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의미’를 붙잡아 보려 한다. 보존과학자의 열정일 터다. 허나 의미에 대한 그의 집착은 애써 살려낸 텔레비전을 부정하는 데 이른다.

기실 익숙한 일 아닌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존재의 있음마저 부정하는 일. 돈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학위가 없다고, 꿈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이론 게 없다고, ‘쫄다 같은 인생들’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지는, 그 세계를 우리는 이미 안다. 텔레비전을 안식처 삼다 마침내는 텔레비전 속으로 들어가 버린 ‘평범한 아버지’와 그의 세 자식의 ‘현재’ 이야기가 극장 밖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해 온 터, 미래의 보존과학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오늘’과 중첩된다. 인간 너머 비인간 사물을 아우르는 확장된 시선으로 ‘오늘’을 다시금 마주한다.

철학자 한병철은 『사물의 소멸』(2022)에서 “오늘날 우리는 실재를 지각할 때 무엇보다도 정보를 얻기 위해 지각”하며, 이에 따라 “실재와의 사물적 접촉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더는 지각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실재의 물질적 울림”, 바로 <보존과학자>의 텔레비전이 보존과학자1에게 느껴보길 원하는 사물의 온기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손상은 자연스러운 시간의 반영이다. 부식이나 마모는 사물도 죽어가는 존재, 즉 생명이라는 것의 반증이다. 인간과 사물은 소멸이라는 순리를 공유한 사이인 셈. 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남겨진 질문은 어떻게 서로가 서로의 시간을 가로질러 만날 것인가, 그리고 그 유한한 만남의 시간 동안 어떻게 서로를 감각할 것인가일 터다.

<보존과학자>는 의미로 치환되지 않는 존재의 물성을 서로 감각하는 일을 상상하며, ‘의미’를 경유하지도 ‘영원’을 담보하지도 않는 희망을 발견한다. 가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고, 세우고, 지키고, 부수고, 다시 세우는 일종의 ‘무대 크루’ 림·송·아누·제제를 통해 연극의 가상은 언제나 실재의 물성을 경유하여 탄생하고, 탄생했다 이내 소멸하며, 소멸했다 다른 모습으로 부활함을 환기하며 전하는 ‘보존’의 세계다.

작가의 글



윤미희

한번 들어오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무언가 해보려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자꾸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아버지도, 둘째도, 어쩌면 보존과학자1도 이런 시간들 속에서 탄생한 인물입니다. 때론 텔레비전이, 철-유리-알루미늄이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작은 불빛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다시 쓰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스로 만들어진 세계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 무언가 해보려 하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연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엉뚱한 상상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믿어보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작품,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만나게 될 우리의 시간을 상상합니다. 극장에서 만나요, 끝내 모두 사라지겠지만, 때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그곳에서요. 저도 거기에 있겠습니다.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국립극단에 감사드립니다.



이인수

"남자와 여자, 사자, 독수리와 꿩, 뿔 달린 사슴, 거위, 거미, 바다에 사는 말 없는 물고기, 불가사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 모든, 슬픈 삶의 한 바퀴를 겪어낸 모든 것들이-지금은 소멸하고 없다."
- <갈매기> 1막, 니나.

우리가 감각과 인정의 지경을 넓혀 철, 구리, 알루미늄, 유리, 산소와 이산화탄소, 물과 공기, 텔레비전과 세탁기, 플라스틱과 비닐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동물과 사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 우리 지구 공동체 혹은 우주 공동체의 구성 일원임을 경험하고 그들에게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그렇다고 착각하고 있는) 센터 자리를 내줄 수 있다면, 만지고 안을 수 있다면, 이 소멸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뒤로 늦출 수 있을까요?

줄거리

대부분의 옛것들이 형체를 알 수 없게 되었거나 우주의 먼지로 변해 버린 미래. 쓸모없는 것들은 이제 그만 보존해야 하지 않을까를 두고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가운데, 보존과학자1은 아주 낡고 보잘것없는 물건의 진실에 다가가고자 애쓴다.

현재 이곳에는 한 가족이 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있는 아버지, 사업에 실패한 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첫째, 꿈에 가닿지 못해 포기 직전인 둘째, 돈을 벌기 위해 전공과 다른 일을 하는 셋째가 각자의 문과 싸우고 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어떤 문 앞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문은 자꾸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한다.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뒤섞이며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가 된다.



Synopsis

In a future where most of the old things have lost their shape or turned into cosmic dust, experts debate whether they should stop preserving useless things. In the meantime, Conservation Scientist 1 strives to get closer to the truth of ancient and insignificant objects.

Here is a family. The father sits in front of the television all day. The eldest daughter is unable to find a job after failing in business. The second daughter is on the verge of giving up because her dreams seem impossible to fulfil. The third daughter works on a job that is unrelated to her major just to make ends meet. They each fight against their own door.

The story unfolds in front of a door that came into existence a long time ago. The door is repeatedly knocked down and rebuilt. Soon, temporal boundaries become blurred, and they become each other's stories.



출연진

미래에 있는 존재들



보존과학자1 | 김서연 Kim Seo-yeon

연극 <더 나은 숲> <금붕어>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



철 전문가 | 송인성 Song Inh-sung

연극 <빛나는 버러지> <웰킨> <스웨트> <터널구간>
<운동하는 여자> <이름없는 꽃은 바람에 지고>
<하녀들> <그녀들의 집> 외

수상 2018 제5회 서울연극인대상 연기상



유리 전문가 | 조승연 Cho Seung-yun

연극 <중국어곡낭독공연: 비빔 잡탕 혹은 샐러드> <발사 6개월 전>
<최후의 전사> <기적의 소년>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밥> <그렇게 살아진다> <모든건 타이밍2> 외



알루미늄 전문가 | 이상은 Lee Sang-eun

연극 <빵야> <버거운 삶> <아몬드> <안티고네> <보이체크 신드롬>
<리처드 2세> 외

뮤지컬 <스페셜 딜리버리> <식구를 찾아서> <인당수 사랑가> <한밤의 세레나데> 외

현재에 있는 존재들



아버지 | 지춘성 Ji Choon-sung

연극 <알리바이 연대기> <후회하는 자들> <생각은 자유>
<고래 햄릿> <불량청년> <씨름> 외
뮤지컬 <레미제라블> <돈키호테>
드라마 <회사 가기 싫어>
수상 2018 제67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2014 제19회 허서연극상 올해의 연극인상
2014 제35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첫째 | 김시영 Kim Si-young

연극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엘리스 인 베드> <새들의 무덤> <슈미>
<이갈리아의 딸들> <말 잘 듣는 사람들> <1인용 식탁> 외
드라마 <모범가족>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대박부동산> 외
수상 2021 제2회 29아나 관람전 연기상



둘째 | 김수아 Kim Su-a

연극 <그 여자 이야기> <ANAK>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천만 개의 도시> <괄호는 괄호와 괄호사이 괄호가 될
수 있을까> <한여름 밤의 꿈> <염소 혹은 실비아는 누구인가>
<우리 박사장의 식칼> <배소고지 이야기> <우리는 처음 만났거
나 너무 오래 알았다> 외



셋째 | 백혜경 Baek Hye-gyeong

연극 <탈피> <좋은 괴물> <제1강 : 거절하는 방법> <별들의 전쟁>
<344명의 쌍년들> <픽킹젠더> <미국연극/서울합창>
<제4의 벽> <입술이 간질간질> 외

은 앞에 있는 존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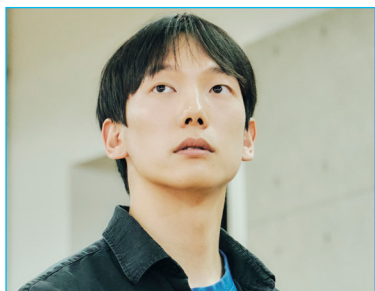
림 | **박보현** Park Bo-hyun

연극 <ANAK> <이순재의 리어왕> <여름이 지나갈 때> <오피스>
<코리올레이너스> <이상한 동거> <개가 된 사나이>
<엄마가 모르는 친구> <굿 데이 투데이> <이기동 체육관> 외



송 | **김도원** Kim Do-won

연극 <ANAK> <세븐 썬>



아누 | **임태섭** Lim Tae-sub

연극 <아빠 안영호 죽이기> <붕붕!> <퀵스 아이> <그 여자 이야기>



제제 | **신재환** Shin Jae-hwan

연극 <누가 무하마드 알리의 관자놀이에 미사일 펀치를 꽂았는가>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아가지 않는다> <두뇌수술> <공포>
<호신술>



스태프 프로필

작

윤미희
Yoon Mi-hee

연극 <상상해 볼 뿐이지> <투명한 집> <나에게는 얼굴을 쓰다듬을 손이 없다>
<마리를 위한 아주 사소한 결정> <성난 파도 속에 앉아 있는 너에게> 외
연희극 <장롱귀신과 친구들>
영화 <신입사원: 더 무비> 각색
도서 『이팡곰 물생미: 윤미희 희곡집』

연출

이인수
Lee In-su

연극 <빛나는 버러지> <그 여자 이야기> <오페라 살로트로니크> <클래스>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ANAK> <테라피>
<우리는 처음 만났거나 너무 오래 알았다> <두 개의 방> <필로우맨> 외
번역 <히스토리 보이즈> <콘센트-동의> <빈센트 리버>

무대·조명

남경식
Nam kyung-sik

연극 <태양> <앨리스 인 베드> <금조이야기> <당선자 없음> <X의 비극>
<완벽한 타인> <시련> <레드 올랜더스> <그를린 사랑> <나는 광주에 없었다> 외

의상

이윤진
Lee Yun-jin

연극 <견고딕-걸> <틴에이지 딕> <파우스트> <빛나는 버러지> <클래스>
<금조 이야기>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광 소리 한 번 없이 흐느낌으로>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달콤한 노래> <오페라 살로트로니크> 외

영상

고동욱
Ko Dong-uk

연극 <견고딕-걸> <선택> <틴에이지 딕> <산책하는 침략자> 외
뮤지컬 <비밀의 화원> <소크라테스 패러독스> <종의 기원>
<괴테의 변론 -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더 와일드의 변론 - 거짓의 쇠락,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적벽> 외

소품·분장

장경숙

Jang Kyoung-suk

연극 <엑스트라 연대기> <견고덕-걸> <노스체> <틴에이지 딕> <앨리스 인 베드>
<붉은 낙엽> <클래스> <편입생> <웰킨> <당선자 없음> 외

음악·음향

이승호

Lee Seung-ho

연극 <틴에이지 딕> <클래스> <탈주자> <보이지 않는 손> <금조 이야기>
<덤 웨이터> <마우스피스> <모토타운> <킬로로지> <뼈의 기행> 외

움직임

이윤정

Lee Yun-jung

무용_안무작 <설근체조> <점과 척추 사이:시선> <75분의 1초> <내장진동> 외

연극_안무작 <소년이 그랬다> <물고기로 죽기> <불꽃놀이> <오셀로> 외

창극_안무작 <정년이> <내 이름은 오동구> 외

조연출

송은혜

Song Eun-hye

연극 <빛나는 버러지> <여기, 한때, 가가> <ANAK> <버거운 삶>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마이 스위트 하우스>
<터널 구간> <인어를 사랑하다> 외

뮤지컬 <루나틱> <내 아내에게 애인이 있다>



엄기호 문화학자

청강문화산업대 만화콘텐츠스쿨 교수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멸한다. 소멸에 저항하더라도 부질없다.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미라가 되어 환생을 꿈꾼 파라오들도 마찬가지다. 생명체만 그런 것이 아니다. 비생명체도 언젠가는 모두 다 닳고 부식되어 사라진다.

그러나 소멸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그저 소멸하는 것만은 아니다. 소멸하는 것들은 흔적을 남기며 사라진다. 어딘가에 자기가 존재했었다는 것, 그 정보는 남기고 사라진다. 정보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무엇인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존재’했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니까 말이다.

사실 이런 점으로 본다면 존재 그 자체는 이전에 존재하던 것들의 흔적일지도 모른다. 거창하게 불교의 ‘연기론’을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존재하던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것이 존재할 수는 없으며 이전 것들의 인연과 연합의 결과로 지금의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과거의 것들의 흔적이다.

존재 그 자체를 존재하던 것들의 흔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굳이 무엇인가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그렇게 ‘사라진 것’을 역지로 보존 처리하지 않더라도 지금 존재하는 것을 ‘흔적’으로 여긴다면 충분히 사라진 것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라졌다고 망각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보존’하려고 하는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보존이 문제가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잊어버릴 때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쓸쓸한 것은 모두가 다 잊어버렸지만 한 명만 기억하고 있을 때이다. 그 한 명이 아무리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망각해버리면 그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이처럼 홀로 알고 있다는 것만큼 쓸쓸하고 위태로운 것이 없다. 그는 홀로 존재하던 것들의 무게를 견뎌내야 한다. 그리고 그 존재하던 것들의 ‘기념비’가 되어야 한다. 베트남전에서 함께하던 동료들을 모두 잃고 홀로 살아 돌아와 악몽에 시달리던 사람에게 수면제 처방을 하자 그가 복용을 거부하며 한 말이다. “전 베트남에서 죽은 친구들을 위해서 살아 있는 기념비가 되어야 해요.”¹⁾ 따라서 홀로 기억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에게 ‘보존’은 절실하다. 어떤 증거가 보존되어 있다면 그는 그 보존된 것으로부터 자기의 기억을 증명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존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진술-증언을 지지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보존 그 자체도 의미 있지만, 보존을 통해 진실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증언을 위해 보존은 의미가 있다. 사라진 존재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기억하고 있는 존재를 위해서.

보존은 보존되는 유물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보존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유물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것도 이야기가 아닌가. 침묵하는 유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유물에 말을 걸어 알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보존은 물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야기에 대한 것이다. 그 물건으로 아버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 물건은 아버지에게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물건 하나하나에 남아 있는 흔적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던 아버지의 삶에 대해 내가 듣지 못한 것을 듣고 기억하고 있다. 모든 이야기가 존재할 가치를 갖는 이야기는 아니다. 사실 이야기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누군가 그 이야기에 더 보탬 말이 남아 있지 않을 때. 그래서 그 이야기가 존재하는 것들과의 연결망을 잃어버리고 공중에 붕 뜨게 될 때 이야기는 기꺼이 사라지려고 한다. 사람들에게 의해 더 보태지고 나뉘지는 것이 없을 때 그건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보존은 물건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것이다. 물건이 말하는 것을 들겠다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만이다. 그것은 상대를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린다. 존재는 오직 대화 ‘안’에서만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건은 자기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다. 대화하기를 바란다. 아버지와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전문가들. 누가 텔레비전과 대화하는지를 주목해 보자.

1) 베셀 반 데어 콜크, 「몸은 기억한다」, 을유문화사, 2020. 37.

과학, 예술

썩지 않는 것만이 살아남은 이곳은 먼 미래이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하더니, 미술관 한가운데
천대가 넘는 텔레비전이 거대한 탐처럼 쌓여 찬란한
빛을 내뿜던 ‘예술’은 이미 사라졌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텔레비전 한 대, 그리고 그것에 다시 불을 켜고자 하는
보존과학자. 더 이상의 생산 능력과 재생 능력이 없는
이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살아남은
것을 보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모든 물질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 마련이고 굉장히
견고해 보이는 강철과 돌덩이도 세월의 흔적을 피할
수는 없다. 무엇인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존재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진정한 보존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혼란스럽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잊히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는 것의 존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한
대의 텔레비전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텔레비전에서
보던 아름다운 영상, 그 텔레비전을 함께 보며 하하 호호
즐거웠던 우리, 너와 나의 가슴속에 남아 있는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른다.

아버지, 텔레비전

여기 한 아버지와 아이 셋이 있다. 무기력해진 가장의
자리는 늘 텔레비전 앞이다. 꾸벅꾸벅 졸더라도 자리는
텔레비전 앞이다. 밥을 먹을 때도 자식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늘 같은 자리다. 아버지가 한 자리를 지키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 애써 어딘가에
집중하지 않아도 눈길을 둘 곳이 있어 좋다. 애써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눈앞에 보이는 것에 빠져들어
다른 생각은 잊을 수 있어서 편안하다. 아버지에게
텔레비전은 떠나간 어머니를 기억하는 장소이자
어머니를 잊는 장소이다.
아이들 셋은 각자 마주한 대답 없는 답답한 문 앞에 서
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다시 서 있는 문, 아무리 지나와도 또 나타나는
문이다. 그 문은 마치 아버지와도 같다.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고, 존재를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다. 아버지는 결국 텔레비전으로 들어간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찾고 싶지만 닿을 수 없다. 그들의 선택은 그런
텔레비전이 탐처럼 쌓여있는 그곳으로 아버지를 보내는
것. 아버지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그들의 선택이었다.

보존과학자가 본 <보존과학자>

김은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보존과학자

힘겨운 노력 끝에 되살려낸 텔레비전 속에서
보존과학자가 마침내 마주한 백남준 아니 아버지. 세상에
마지막 남은 알루미늄으로 살려낸 텔레비전에서 그는
위대한 예술을 되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 텔레비전은
여염집 거실에 있던 것이 아니라 미술관에 전시되어
작가의 예술혼을 전하던 그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백남준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었다.
살아난 것은 그것대로의 의미가 있다. 보존과학자의
노력으로 복원해서 영원히 보존하여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이 대단한 미디어아트가 아니어도
이제는 상관이 없다.

보존과학자가 본 <보존과학자>

보존과학자는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무엇을 어떻게
보존해야 할까, 누가 언제 보존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올바른 선택일까? 단순히 더 가치 있는
것을 우선 보존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실패 확률이 적은
방법으로 처리하며,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재료와 기술만
사용하는 것이 보존과학이라면 그것은 쉬운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물질의 가치는 늘 상대적인 것이고,
확률이란 비껴나가기 마련이다.

애써 보존하고자 하는 예술도 과학적이지는 않다. 과학과
예술은 융합이라는 거창한 단어가 있어야 만날 만큼
다르지 않던가. 철저하게 작가의 감정과 우연, 창의성에
기대어 창조된 작품은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다. 작가의
손을 떠나 각각의 작품이 지나온 여정도 모두 달라
그들이 작품 속에 품고 있는 세월의 이야기가 모두 의미가
있다. 어떤 것은 지우고 어떤 것을 살리는 결정을 과학의
이름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보존과학자> 이야기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이 텔레비전은 어떤
의미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 지금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여
고민하게 만든다. 그래서 보존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전달자'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자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작가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을 먼
훗날에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일 말이다.
그 이야기가 철, 유리, 알루미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너무 자명하다. 100년 후 나의
텔레비전 속에는 과연 누가 살아남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무대 스케치



남경식 무대디자이너

“<보존과학자> 텍스트의 첫 느낌은 지금까지 해왔던 공연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텍스트였습니다. 극 중 생소한 물성들의 사용이나, 시간과 공간의 섞임 등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해 내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대는 객관적인 성격의 흰색의 ‘ㄱ’자 구조 안에 다양한 물성의 대도구들이 오브제로 존재한다. 중앙무대에는 흙과 같은 원초적인 물성이 존재하며, 후 무대에는 수많은 박스가 수장고를 형성하고 있다. 공간은 표면적으로 ‘보존과학자1’의 연구실이며, 수많은 시간과 공간이 지나가는 교차점이다. 보존과학실에는 지금까지 발굴하고 보존된 많은 물건이 고유의 넘버와 코드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으며, 그 흔적들이 이야기로 발현된다. 수장고 안 박스의 수만큼 다양한 흔적들과 이야기가 모여 <보존과학자>의 무대가 된다.

의상 스케치

이윤진 의상디자이너

미래에 있는 존재



보존과학자



철



유리



알루미늄

현재에 있는 존재



아버지



첫째



둘째



셋째

과거에 있는 존재



림



송



아누



제제

연습 스케치





만드는 사람들

출연

김도원 김서연 김수아 김시영 박보현 백혜경
송인성 신재환 이상은 임태섭 조승연 지춘성

스태프

작 윤미희
연출 이인수

무대·조명 남경식

의상 이윤진
영상 고통욱
소품·분장 장경숙
음악·음향 이승호
음직임 이윤정
조연출 송은혜

조명보 김소현

의상보 방예원 이수진 배은창
영상보 문유진

무대기술총괄 정광호

무대감독 나혜민
무대제작감독 이승수
조명감독 송석
음향감독·오퍼레이터 장도희
의상감독 박지수

무대진행 마정흔 이성진

의상진행 전요나
분장진행 김예슬 김다현
조명오퍼레이터 김세희
영상오퍼레이터 김수현
음향RF 조현정

조명프로그램 김소현

조명팀 정찬영 정우원 최인수 김영준 유보민 김남수
영상팀 조정환 박지웅 강윤지
소품·분장팀 김예슬
음향팀 조성욱
세트팀 정우상 김세진 주요환 차승호 정우근
이종민 이범용 이승용 정병문 정재현
작화팀 이남련 박지원 김미경 김용선 이재형

무대제작 에이스테이지_대표 이윤중

의상제작 옷장_대표 이윤진
영상제작 EASThug_대표 고통욱
영상장비 임차 우리컴퍼니_대표 전정미

한국수어통역 이소현 이화정 조미주 하상필

음성해설 (주)한국콘텐츠접근성연구센터
대본·낭독 서수연

자막해설 디자인 이청

자막해설 오퍼레이팅 정혜정

홍보·마케팅 총괄 정광호

홍보 이정현 김한경
마케팅 노소연 김지영
온라인마케팅 조영채 최우영
고객관리 이현아
청년인턴 장인영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10기 김유경 박하영 이소현 정희우 조윤지

메인디자인 페이퍼프레스_대표 박신우

응용디자인 RE01_대표 김리원
홍보·연습·공연사진 만나사진작업실_대표 김신중
홍보·하이라이트 영상 모두의 필름_대표 김유민
옥외광고 영기획_대표 서성원
홍보물 인쇄 인타임_대표 김종민

프로그래밍 디자인 전안수

프로그래밍 인쇄 미림아트_대표 신동복

공연영상제작 율하우스_대표 조선영

티켓 김보전

매표안내원 강민주 김채은 박화란 이다영

하우스매니저 김수현

하우스안내원 김지수 고계령 최민아 김연정 고새안 강성준 노정균
설인화 박은혜 신정훈 양선형 이가영 이선우 이성준
이세희 이민경 이지은 한세린 황지수

[창작공감:작가] 운영위원 전영지

작품개발총괄 정용성
작품개발 프로듀서 한나래

기획·제작 총괄 김옥경

프로듀서 박소영 강민정
제작진행 이슬

제작 (제)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재단법인 국립극단

(재)국립극단 이사회

(공석) 이사장

김광보 이사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심재찬 이사 연출가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은복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경영관리팀

신민희 팀장

현승은 정병욱 박지민 박예원 이민희 김수아

김미지 김민주 김도희 최신화 이다미

백예나 청년인턴

작품개발팀

정용성 팀장

김태은 이슬예 정준원

공연기획팀

김옥경 팀장

김나래 김윤형 김정연 김수현 박성연 박소영

강현정 강민정 김주빈 김현지

홍보마케팅팀

정광호 팀장

박보영 이현아 최윤영 김보전 김보배 이정현

김효진 이승이 조영채 노소연 정진영 김지영 최우영

장인영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정광호 팀장

김용주 음창인 홍영진 박지수 류선영 이병석

나혜민 박정현 김정빈 김태연 경은주 이승수

장도희 윤성희 송석

백경민 연수단원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김미선 손준형 김혜연 최하정

이혜진 청년인턴

2023 시즌단원

강민지 곽은태 김예은 김시영 남재영 문성복 백혜경 성근창

송철호 여승희 윤성원 이다혜 이상은 조승연 홍지인 황규환

2023년



김예은

[창작공감:작가]
〈문순〉

[창작공감:연출]
〈스고파라갈〉



김시영

[창작공감:작가]
〈보존과학자〉

[창작공감:연출]
〈당신에게 닿는 길〉

국립극단과 시즌단원이



강민지

〈만선〉

[창작공감:연출]
〈스고파라갈〉



곽은태

〈벚꽃 동산〉

〈이 불안한 집〉

함께합니다



남재영

[창작공감:작가]
〈문순〉

〈이 불안한 집〉



문성복

〈만선〉
〈이 불안한 집〉



백혜경

[창작공감:작가]
〈보존과학자〉

[창작공감:연출]
〈스고파라갈〉



성근창

〈만선〉
〈이 불안한 집〉



송철호

〈벚꽃 동산〉
〈이 불안한 집〉



여승희

[창작공감:작가]
〈문순〉

〈이 불안한 집〉



윤성민

〈벚꽃 동산〉
〈이 불안한 집〉



이다혜

〈벚꽃 동산〉
[창작공감:연출]
〈당신에게 닿는 길〉



이상운

[창작공감:작가]
〈보존과학자〉
[창작공감:연출]
〈당신에게 닿는 길〉



조승연

[창작공감:작가]
〈보존과학자〉
[창작공감:연출]
〈당신에게 닿는 길〉



홍지인

〈벚꽃 동산〉
〈이 불안한 집〉



황규한

〈만선〉
〈이 불안한 집〉

2023 시즌 라인업

명동예술극장

레퍼토리

만선

작 천승세, 운색 윤미현, 연출 심재찬
3.16.-4.9.

공동기획

제6회 중국희곡 낭독공연

4.12.-4.16.

세계고전

벚꽃 동산

작 안토 체호프, 연출 김광보
5.4.-5.28.

해외신작

이 불안한 집

작 지니 해리스, 연출 김정
8.31.-9.24.

청소년극

TANK ; 0-24

10.26.-11.19.

레퍼토리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원작 기군상, 각색·연출 고선웅
11.30.-12.25.

백성희장민호극장

창작

문순

작 이소연, 연출 진해정
4.13.-5.7.

창작

보존과학자

작 윤미희, 연출 이인수
5.25.-6.18.

소극장 판

청소년극

영지

작 허성혜, 연출 김미란
5.18.-6.11.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연출

스고파라갈

작·연출 임성현
8.24.-9.17.

연출

당신에게 닿는 길

작·연출 한민규
10.5.-10.29.

온라인 극장

세인트 조앤
발가락 육상천재
and more...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양한 기념품을
만들어 주세요.

2019. 10.
〈알리바이 연대기〉 관객 의견



마스킹 테이프 등
기념품 추가 제작

2020. 1.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래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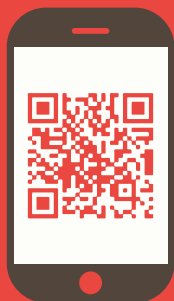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극이 보고 싶을 땐!

국립극단 회원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최대 할인율로 예약하는 즐거움까지

유료회원

* 가입기간 1년

친한친구 연회비 5만원

- 제작공연 40% 할인 (전등금, 공연별 4매한)
- 제작 공연 우선 예약
- 온라인 극장 1개 작품
1회 무료 관람권(쿠폰) 제공

연극인회원

* 가입기간 3년

제작공연 50%할인(전등금, 본인 1매 한)

가입대상

- ① 현재 연극 관련 단체 및 협회에 소속된 경우
- ② 최근 1년 이내 교육기관에서
연극 교육활동을 한 경우
- ③ 최근 3년 동안 공개 발표된
연극공연(유/무료)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무료회원

- 신규회원 20% 할인쿠폰 제공
- 국립극단 홈페이지 예약 시 수수료 면제
- 공연 프로그램 및 포스터 무료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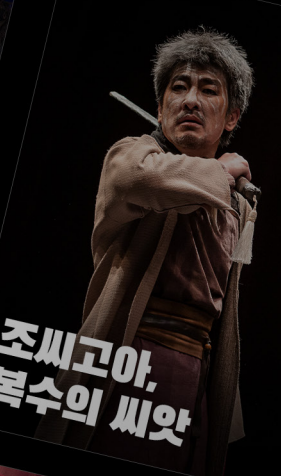
문의 및 가입

국립극단 홈페이지
www.ntck.or.kr

고객센터
1644-2003




스카펄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만선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파우스트 엔딩



X의 비극



연극을 내 일상과 가장 가깝게



ON

국립극단
온라인 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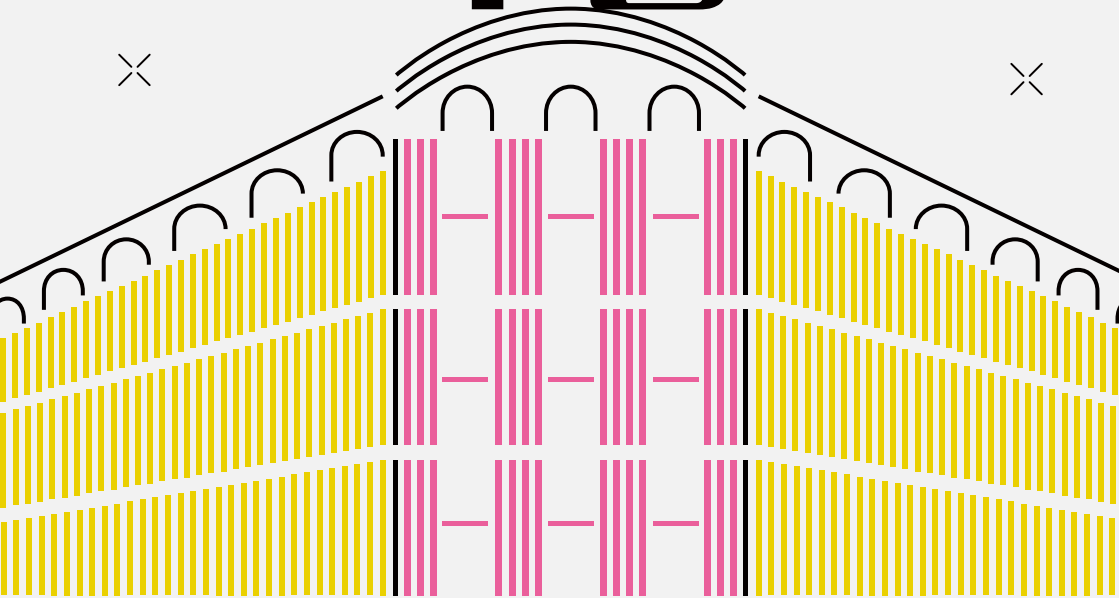
on.ntck.or.kr

남수현, 김우진, 윤동원 배우 편

소년이그랬다

연극이 주는 진한 감동,
앞으로도 계속해서 느끼고 싶다면?
국립극단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국립극단 후원



- ✓ 1만원부터 자유롭게
- ✓ 첫 후원 감사 선물 증정(연말 발송)
- ✓ 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원하러 가기

문의
1644-2003

www.ntck.or.kr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 Jung-gu, Seoul, Korea(04534)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어딘가, 무언가, 누군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